

광명시-광명시의회 협치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 합의

2월 첫째 주까지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 개최해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신속 추진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협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위한 광명시-광명시의회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민

생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며, "우리 광명시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협치의 손을 잡아주시는 광명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성환 시의장은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해 집행부와 협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광명시의회는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2월 첫째 주까지 개최하고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 지원예산 신규 편성 및 신속 집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단장 박승원 시장) 발족 등 난방비 긴급 지원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을 포함한 7천 4백 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경로당 56개소에 1회에 한해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지원예산 15억여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방비 민원을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를 구성하고 향후 난방비 긴급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어 취약계층이 난방에 대해 걱정이 없을 때까지 상시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 등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적극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윤용민기자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 도립(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유치에 본격 나서

울릉군 의료 환경 개선 위해 도립(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군)은 1월 30일 '경상북도 도립(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울릉도 의료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남진복 의원은 울릉도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도립(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도립(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2022년 7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해 오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남진복 의원과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울릉보건의료원장, 포항의료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도립(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타당성과 울릉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남진복 의원은 "울릉도의 공공의료기관은 군립의료원뿐이고 이마저도 전문의 대부분이 공중보건의가 복무중인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울릉도는 우리나라 군 단위 보건 의료원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며, "응급환자나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전적으로 해상교통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릉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 대응이 불가능해 헬기 및 경정비로 육지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가 연평균 100명이 넘는다. 이런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따라서 도립(포항)의료원 울릉

분원 설치에 울릉군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는 생활보다는 생존을 염려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울릉군의 의료 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마련에 경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남의원은 2022년 2월에 개최된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립(포항)의료원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울릉도에 도립(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최

1일부터 9일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5개 안건 상정

봉화군의회는 2월 1일 제254회 임시회 개최식 및 1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건 처리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안건으로는 △봉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봉화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

획 재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5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날인 2월 1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1일부터 9일까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은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5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둔 의정활동으로 든든한 봉화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셋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의회

전민에게 믿음주는 영양군의회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 2월 5일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4년 만에 돌아온 달집태우기로 근심 걱정 활활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은 오는 2월 4일과 5일 양일간, 입춘-정월대보름맞이 세시행사인 '2023 남산골 세시올림 입춘-정월 대보름 '봄달 : 봄날에 뜬 달'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더욱 뜻깊다.

먼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2월 4일)에는 오전 10시에 '입춘첩 붙이기' 행사를 개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연자가 직접 '입춘첩'을 적어 남산골한옥마을 정문에 붙이는 시연이 펼쳐진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 중 하루인 정월대보름(2월 5일) 당일인 오후 2시부터 시민 참여 행사가 개최된다.

시민들이 직접 종이에 소원을 적어 나무에 다는 '소원나무'가 설치된다.

또한 '부럼깨기 체험'도 마련되어

한 해 동안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 기원했던 조상들의 풍속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다. 소원나무 체험과 부럼깨기 체험은 모두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광개토사물놀이'의 공연 '축원 지신밧기 혼의소리'가 펼쳐져 시민들의 흥을 돋운다. 길놀이, 놀음판 등 신명나는 공연을 통해 가정의 액운을 막고 한 해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광개토사물놀이' 공연이 종료되고 동시에 오후 6시 30분부터는 정월대보름 행사의 백미(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 행사가 개최된다. 달집태우기 행사는 소나무 가지 등을 쌓아 올린 더미에 불을 붙여 태우며 액운을 태워버리고, 가정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했던 세시풍속 행사

다.

이번 '달집태우기' 행사에는 2022년 동지 행사부터 모인 남산골한옥마을 방문객들의 소원을 태워, 각자의 소원이 하늘 멀리 달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행사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최되며, 강풍, 폭설 등의 기상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 행사 개최 여부는 남산골한옥마을 누리소통망(SNS)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홍진 서울특별시 문화재관리과장은 "남산골한옥마을의 정월대보름 행사를 오랜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하게 되어 무척 뜻깊다"며 "선조들의 세시풍속을 몸소 체험해보며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금천구, 2023년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규반, 특강반 운영(2월은 정규반만 운영)

금천구는 계층 간 정보격차를 없애고, 구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정보화 교육을 운영한다.

구민 정보화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대면 교육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 매월 정규반, 특강반으로 운영되며(2월은 정규반만 운영), 교육 과정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세분화해 주민들이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원도우, 인터넷 등 컴퓨터 기초 과정부터 '스마트폰 100배 활용', '키오스크 체험',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까지 다양한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정 또는 장애인 돌봄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을 원하는 구민은 매월 25일경부터 금천구청 홈페이지 '교육포털' 또는 구민 정보화 교육 콜센터(☎02-2627-1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월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2월 강좌에서는 '세상을 여는 창, 원도우', '세상과 연결하는 스마트폰' 총 2가지 과정을 진행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디지털 시대에 생활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수준별, 맞춤형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했으며 구민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성북구, 살맛 나는 아파트 위한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서울 성북구가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모집한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 내·외 인적,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여 열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성북구 소재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지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주민 소통, 취미, 사회봉사 등) ▲어르신 보안전(단지 내 순찰활동 등) ▲열린아파트(공간개방, 공동체활동 등) ▲관리지원(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이다. 경비원 냉난방 시설 지원 사업은 관리지원 분야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단지별 2백만 원 이하).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를 성북구청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성북구 보문로168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이나 전자우편을 이

용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그리고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대 8백만 원, 어르신 보안전 사업 최대 2백만 원, 열린아파트 사업 최대 2천만 원, 관리지원 사업 최대 1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성북구는 2011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어르신 보안전 사업으로 총 133개 단지를 지원하고 관리지원 사업으로 52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은 편리하나 이웃 간 소통이 어렵게 지속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살맛나는 아파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나만의 송파구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명소, 영상으로 보여줄게!

송파구는 청소년들이 영상제작을 통해 '나만의 송파구 명소'를 추천하는 '엔택트 송파탐방 알송달송(알면 좋은 송파명소 달러보자 송파명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콘텐트 주제는 '새해맞이 #오운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한 나만의 운동하기 좋은 명소'이다. 구는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함께, 미디어 콘텐트 제작 재능으로 지역을 알리는 '청소년 홍보대사'로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알송달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14~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2월 8일(수)까지 구립잠실청소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여자들은 2월 10일(금)부터 28일(화)까지 자유롭게 '송파구 내 나만의 운동 명소'를 선정하고 그 곳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카카오톡 채널 '잠실청'으로 전송하면 된다. 영상은 제출 마감일에 구립잠실청소년센터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송파구 전역에 홍보된다.

해당 활동은 참여자 전원에게 봉사활동 시간으로도 인정되며, 유튜브 최대 조회 수를 기록한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 시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구는 향후 4월, 9월, 11월에도 봄꽃 명소, 전통시장, 축제 등 다양한 주제로 송파의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엔택트 송파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제작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규식/기자

'문화예술도시 서초' 정취·맛집 명소를 지도 한장에 쏙!

구, 지역 찾는 관광객 등을 위해 명소 등을 소개한 '섬과 낭만의 서초구 관광안내지도' 제작

"Rest & Romance"

서울 서초구가 지역 내 정취·맛집 명소를 한 장으로 담은 지도를 발간했다. 이름은 '섬과 낭만의 서초구 관광 안내지도'이다. 서초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쉽게 명소를 찾고 맛집 등의 정보를 얻도록 포켓형 지도를 만들었다.

구는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지구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를 널리 알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도시 서초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구의 관광안내지도는 12단 접이식으로 국문 8천부와 영문 5천부 두 종류로 제작,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 쉽게 활용하도록 했다.

지도 앞뒷면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떠오른 특화거리와 문화재, 랜드마크, 문화시설 등 총 7개 분야, 120여개의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지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면에는 관광 숙박시설, 관광명소, 쇼핑, 맛집, 교통편 등의 위치를 클립아트 형식으로 표기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들의 명소로 떠오른 강남역·반포한강공원·고척터미널 일대 3곳은 확대 지도로 만들어 편의를 더했다.

뒷면에는 앞면에 있는 정보에 대



해 구체화 했다. 미술관과 불리본이 선정한 '서초의 맛집' 20곳을 비롯해 △강남역 일대 라인프렌즈샵부터 양재동 코스트코까지 이어지는 '쇼핑 코스' △서리풀페스티벌, 반포서래한불음악축제 등 주민과 관광객이 계절별로 함께 즐기는 '축제정보', △4개 권역별로 소개한 '서초의 명소' 등이 사진과 설명으로 안내되어 있다.

특히 구는 '서초의 명소' 코너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등의 매력을 소개했다. 예술의 전당 등이 포함된 '서리풀악기거리'가 대표적이다. 이 곳은 200여개의 공연장, 악기공방, 음악연습실 등이 밀집

된 곳으로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된 클래식 음악 문화거리다.

그 밖에,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강남역 일대 '고기골목'과 윈드타워 '서초 바람의 언덕' △80~90년대 당시 젊은이들의 단골 장소로 5060세대에게 향수를 느끼게 하는 '방배카페골목', △서울 속 작은 프랑스 '서래마을 카페거리' 등을 담았다.

이외에도 조선 임금인 태종과 순조가 안장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현인릉', 효령대군 묘소가 있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호 청려사, 역사적 의미를 가진 매현윤봉길의사

기념관 등 각종 문화재와 기념관들도 실렸다.

구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주요 관광지, 문화시설 및 숙박시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배부한다. 방문객들은 종이 지도를 무료로 받아보거나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도 이름처럼 관광객들과 구민들이 서초구 곳곳의 명소를 방문해 '섬과 낭만'을 즐겼으면 한다"며 "이번 지도제작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문화가 흐르는 서초'를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관악구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책자 발간

골목상권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눈에 담자

관악구가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3년도 관악구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섰다.

안내 책자에는 관악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기 쉽게 '골목상권 주요사업'과 '소상공인 대상 주요 지원사업' 2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골목상권 주요사업'으로는 상인들 간의 동일 관심사 등 동아리 활동을 위한 ▲상인 스티디 그룹 활동지원, 점포 경영 및 마케팅 등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제2기 상인대학 운영 사업이 소개되어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SNS 영상콘

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 ▲핵심점포 육성사업, ▲상권이용 촉진 통합 이벤트 내용도 실려있다.

'소상공인 대상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점포개선 사업인 ▲관악형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금융지원 사업인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악 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안내 책자는 정보 부재로 사업에 참여를 못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됐다"라며 "실땀같은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시흥시, 꼭 알아야 할 '마약법'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제작 배포

시흥시는 마약류 취급자들이 꼭 알아야 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점검부 제작은 최근 연이은 언론보도 및 경찰청 국민제감 전략과제 1호로 떠오르는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관심 증가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관내 마약류취급자 중 직접 취급이 가장 많은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위반 사항 및 질문사항을 알려, 마약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해 시민 건강보호와 안전한 약무환경을 위한 마약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마약법' 주요 내용 및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에는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마약류 양도승인신청서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마약법 관련 주요 행정처분 내역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서식 등을 수록했다. 점검부 책자는 시흥시 약사회와 보건소를 통해 기존약국 및 신규 개설약국에 배포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약사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법률 배포와 홍보 등으로 대국민적 관심이 높은 마약류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계획세워 교통·공공 시설 입지문제 등 지역간 공간부정합해소해야”

경기연구원,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발간

현행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 부조화,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으로 교통·공공시설 입지 문제 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중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계획-후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Job-Housing)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도시문제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의 환류체계 부재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 하라고 제안했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목적 및 목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공간관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계획 수립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연계형 계획 수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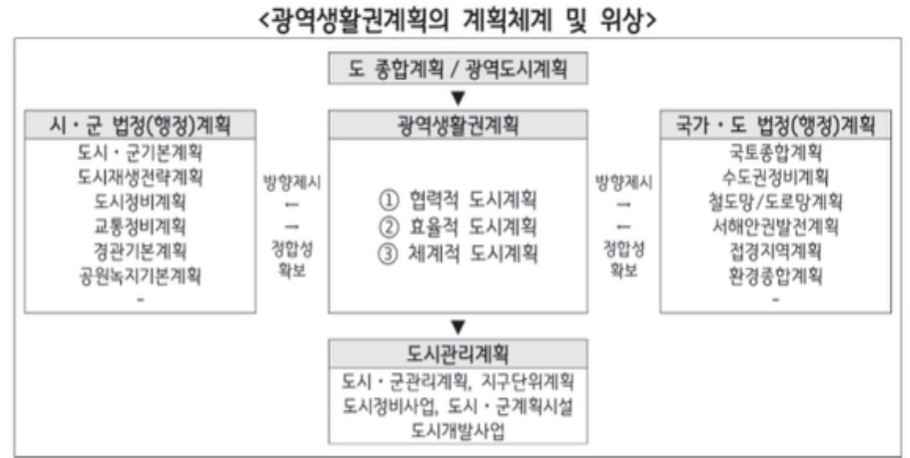
광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권역발전 전략구상'과 '시·군발전전략구상', '공간관리전략(지침)'으로 구성한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추진방안으로 ▲우선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마련과 함께 시범권역을 선정해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모니터링, 보완해 계획 수립의 대상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광역생활권은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권역으로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이천,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해안권역(화성, 평택,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오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자료: 경기도(2022) 내부자료

광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권역발전 전략구상'과 '시·군발전전략구상', '공간관리전략(지침)'으로 구성한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추진방안으로 ▲우선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의 마련과 함께 시범권역을 선정해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모니터링, 보완해 계획 수립의 대상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광역생활권은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권역으로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이천,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해안권역(화성, 평택,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오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연구원, 'MZ 세대' 교사는 다를까?

이전 세대 교원과 비교를 통한 MZ세대 교사의 특성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박정일)은 학교 맥락에서 나타나는 'MZ 세대' 교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MZ 세대' 교사의 특성 연구(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구하라)를 발간했다.

본 연구는 교원 세대 간 비교를 통해 'MZ 세대' 교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교원 1,0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MZ 세대' 교사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이 다소 높고 공동체 의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교사 간에 다른 패턴이 발견됐는데, '밀레니얼 세대' 교사가 여러 세대 중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높고 공동체 의식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MZ 세대' 교사는 이전 세대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교직 선택 동기'에서도 확인됐는데 'MZ 세대' 교사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직 선택 동기로서 '방학이 있어서'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좋은 직업이어서'에 높게 응답했다.

한편 'MZ 세대' 교사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직과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폭넓게 자기 개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이 개발 활동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MZ 세대' 교사는 이전 세대보다 '교직 이외 다른 직종으로 이직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차 교사 시절 목표로 한 직위'에 대해 'MZ 세대' 교사는 이전 세대보다

'평교사'를 더 적게 희망한 반면 '관리직', '전문직', '수석교사' 등을 더 많이 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MZ 세대' 교사는 이전 세대 교사와 비교하여 원격수업 역량(원격수업 도구 및 기술 활용, 원격수업 자료 제작, 학생들과 온라인 소통)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Z 세대' 교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신규 교사로 임직하여 적응할 때 '온라인 활동'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도 응답했다.

요약하면 'MZ 세대' 교사는 개인주의 성향이 다소 높고 공동체 의식이 낮은 편이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직 안팎에서 전문성을 개발하고 성장하기를 추구하며, 높은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MZ 세대' 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는 첫째, 학교 구성원의 공동체성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교원 세대 간 특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MZ 세대' 교사의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기반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그 형태(시간 축소 등)와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MZ 세대' 교사의 뛰어난 원격수업 역량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 방식에 주목하여 'MZ 세대' 교사의 강점과 전문성이 다른 세대 교사에게 공유될 수 있는 세대 간 상호학습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MZ 세대' 교사들의 자기 개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주제를 다채롭게 구성하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강사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생평가 정책 공감 토론회 연다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 마련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정책 공감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고, 학생평가 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은 병점고등학교 간호교사 이말아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범박고등학교 이지는 학생, 상일고등학교 김수아 학부모, 여주고등학교 한상혁 교감, 오마중학교 정영희 수석교사, 경화여자중학교 현옥련 교사, 한국외대학교 김현진 교수,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김영숙 장학관이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에 대한 논의와 함께 눈높이형 평가 등을 통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평가', 에듀테크 활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 등을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평가 문화 등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도교육청 김신영 학교교육과정과장

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평가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2023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중등 학생평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윤종영 의원,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 참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과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30일 '2023년 경기도 관·군 워크숍'에 참석하여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 관할 부대 등 軍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시군의 관군협력관 등 官의 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방부 주요 업무와 도의 군 협력 사업 등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강철구 박사의 '군소음 피해 현황 및 민군 상생발전방안 연구', 대진대 허훈 교수의 '군 관련 갈등 발생 및 해결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고 시군별 주요 군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혜영기자

안계일 위원장은 "군사시설, 접경 지역 주민들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군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주민 생활안전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방면으로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혜영기자

안성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성시는 임산부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2023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2월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임산부 지원 관리시스템에서 추첨을 통하여 2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신청방법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요청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산모수첩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도 선정되면 오는 11월 30일까지 1인당 48만원 상당(자

부담 9만6천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친환경 농가의 판로 다양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한인보고 2022-03

www.gje.kr

'MZ 세대' 교사의 특성 연구

구하라
김종환
이승현

경기도교육연구원
GYEONGGIDO INSTITUTE OF EDUCATION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기업이 수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수원시,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기업유치 상호협력 관내 기업인 간담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유치 상호협력 기업인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삼성전자(주) 전재풍 그룹장, 삼성전기(주) 황광선 그룹장, CJ제일제당(주) 송수진 실장, CJ대한통운(주) 이동현 담당, 코웰패션(주) 최용석 대표, 송원산업(주) 박정범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그에 맞는 행정 조치를 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첨단기업, 연구소 등이 수원시의 유희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수원시의 기업 유치·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재풍 삼성전자(주) 그룹장은 “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의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면 기업들이 수원을 찾아올 것”이라며 “인프라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간담회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기업인들의 인사말, 이상균 수원시 기업유치담당자의 기업유치·지원 전략 설명, 전체 토론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의 기업유치 전략은 ▲국·공유지 유희부지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매탄·원천동 일원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지정 추진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이다.

수원시는 현재 중앙정부, 공공기관,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희부지 13

만 2000㎡가량을 가용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본사 등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건축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3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기업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체 수립한 발전계획을 수원시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 수원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조치를 시행한다.

단 토지 소유 주체가 반영된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규제 완화를 중단하는 ‘조건부 반영’으로 부당한 특혜·지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매탄·원천동 일원 공업지역은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건폐율·용적률의 법적 상한 초과가 가능하다. 수원시는 복합적·임체적 계획 수립으로 산업·주거 기능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기업 지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상시 고용 30명 이상·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타지역 첨단기업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일자리 50명 이상 창출·100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토지 매입비·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6%(최대 5억 원)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3년간 50%(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수원

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지원 전략은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지원,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등이다.

먼저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조성해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한다.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될 수원기업 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정부수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마중물 삼아 초기 창업기업이 유니콘(Uncorn) 기업으로 성장하는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 성장통을 극복한 중소기업에는 제갈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을 한다.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들은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5년간 최고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업체에는 전자무역 마케팅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여러 중앙부처에 제세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힘을 모으고 있다.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규정만 완화되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 ‘더가치홀’ 개관

공예품, 업사이클링제품, 친환경제품, 미술품, 3D프린팅 제품 등 46점 전시

광명시는 30일 광명GIDC(일직로 43) B동 28층에서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 ‘더가치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의원,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 경과보고, 축사, 시설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올해 광명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며,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 ‘더가치홀’이 함께하는 시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가치홀’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기업 간 연대와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2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작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했다.

아울러 시는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의 명칭을 공모하고 설문조사, 심사를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 전시와 홍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협동과 참여,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

겨있는 ‘더가치홀’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더가치홀’은 GIDC로부터 기부 채납받은 B동 28층 A동-B동 연결브릿지에 연 면적 130.01㎡ 규모의 제품 전시 공간, 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제품 전시 공간에는 공예품, 업사이클링 제품, 친환경제품, 미술품, 3D프린팅 제품, 제로웨이스트 제품 등 총 46점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더가치홀’은 광명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 도우미가 기업과 제품을 설명해 방문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 ‘더가치홀’ 개관과 함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타당성 연구용역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세무·회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공정관광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워크숍 ▲해외 생산지 교류사업 ▲예비창업팀 사업개발비 지원·멘토링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운영 지원 ▲광명시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여주시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선진 행정 수행... 벤치마킹 쇄도

옥천군 체육사업소는 체육진흥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27일 여주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으로 옥천군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방안,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양궁부) 운용 실태, 양궁장 방문 등 다양한 여주시 체육 환경을 답사하고 갔다.

양 기관은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체육진흥기금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하며 양 기관이 지속적 논의를 통해 지역체육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체육진흥기금 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전문 체육 육성, 유소년 체육 지원 등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경기도 최초 직장운동경기부(여자 양궁부) 선수 전용 휴게실을 도입하는 등 선진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여주시장(이충우)은 “여주시의 선진 체육행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앞서는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열/기자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 공직자를 안전요원으로 양성”

오산시가 내달 1일부터 내삼미동에 소재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오산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 회복 및 재난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전 공무원이 먼저 재난안전 체험 교육을 받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시민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 전 직원은 1,163명(현원 공

무원 839명, 시간선택제 104명, 청원경찰 24명, 기간제 196명)으로 이번 2월부터 5월까지 1차 교육을 받는다. 1차 교육 미이수자는 9월부터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오산시는 이미 지난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유치원 48개소와 함께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 공직자가 안전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의 안전사

고 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대비하여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배울수록 더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VR, 4D와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재난 안전분야 맞춤형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촌 생활안전, 2촌 교통안전, 3촌 재난안전, 4촌 캠핑안전, 산업안전(화재진압, 산업안전, 심폐소생술 등), 어린이 안전 동화마을 등 총 6개로 나누어 맞춤형 체험교육을 운영한다.

양시현/기자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니다

“2007년 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비거주하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단, 1일 내린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지붕의 경우 적설량 25cm 이상 시 제설작업 실시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도 :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 거 용 :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 1미터까지
- 비주거용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 시설물의 지붕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의 지붕구간 포함)
- 여러층의 복합적 지붕형성(모든 지붕구간)

눈, 이만큼 치워주세요!

City of Masters 안성
안성맞춤도시

의성군, 개인별 건강맞춤 건강원스톱서비스 실시

의성군은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평가해 개인별 맞춤형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 건강원스톱서비스는 보건소 운동처방실에서 연중, 09~18시까지 운영되며, ▲기초건강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영양관리(영양섭취 평가, 적정 체중, 체지방률, 식단 및 영양지도) ▲신체계측 및 체성분 측정 ▲체력진단(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평형성, 심폐지구력) 실시 후 간호사·영양사·운동사 각 전문 인력의 건강·영양·운동 상담이 제공된다.

또한, 건강걷기동아리 및 심뇌혈관 질환예방 프로그램 연계, 금연 희망자에 대하여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여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건강실천사항을 안내하여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인별 맞춤형 건강원스톱서비스 운영을 통해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군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통영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꼭! 참여하세요!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홍보 캠페인

통영시는 지난 27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중앙통시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동절기 추가접종 중인 코로나19 2가백신은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기존 백신만을 접종한 집단보다 중화항체가 증가(BA.4.5 변이 2.7배 ↑, BN.1 변이 4.4배 ↑)하며 중증진행 위험이 95.1%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중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자로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최소 90일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없이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통영시보건소 관계자는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으로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재감염 시 사망위험 2.1배, 입원위험 3.1배 증가)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준기자



봉화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동계 예찰 나서

오는 3월까지 사과 재배 농가 대상 예방법 철저히 준수 당부

봉화군은 오는 3월까지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 화상병 동계 예찰을 실시한다. 과수 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봉화군은 인근 시·군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됨에 따라 겨울철 동계예찰을 통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겨울철 과원 관리 방법으로는 전정 시 농작업 도구와 작업복 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에 소독하기, 화상병 유사궤양 증상 가지 40~70cm 아래 절단 후 약제 도포,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등이다. 장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 화상병은 확실한 치료제가 없고 큰 피해를 야기하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농업인 스스로가 과수화상병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동계예찰을 통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으로 에너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정부 에너지 지원 대책 사각지대 집중 발굴로 대상자 누락 방지

경상북도는 정부의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과 더불어, 도내 난방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급등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당초 15만4천원에서 30만7천원으로 인상하고, 가스요금 감면 폭을 당초 9천원~3만6천원에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난방비 지원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애인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1월 30일 시군 복지부서 국·과장 영상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에너지 취약계층 집중 발굴 기간'으로 설정했다.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

해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전기요금 할인 미 신청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신청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가구별 전화·방문조사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할인 대책과 별도로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권자 10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 긴급난방비 105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유례없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원 복지건강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인, 장애인 등 가구 특성으로 인해 관련 시책을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D마일' 신규 회원 가입 시 10,000 마일리지 제공

승용차요일제, 에코바이크, 포인트 파크(신용카드, 통신 등 16개사 제휴) 등 서비스 연계

대구는 2월 1일 09시부터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인 'D마일'앱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 400명에게 10,000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마일리지 통합 플랫폼인 'D마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D마일'은 공공과 민간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통합 후 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나 교통카드(원패스)로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비스이다. 공공 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승용차 5부제 운행 동참 시 마일리지 적

립), 에코바이크(자전거를 이용하면 마일리지 적립), 탄소중립 활동(걷기, 분리수거, 절전 등 43개 분야 실천 후 마일리지 적립) 등의 서비스가 연계되고, 민간 마일리지는 신용카드, 정유사, OK캐시백, 도서상품권 등 다양한 분야의 포인트를 한곳으로 모으는 서비스인 포인트 파크와 연계해 포인트파크 제휴사 16개사의 포인트를 D마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과 민간에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D마일' 마일리지로 통합하여 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나 교통카드(원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

고, 국내이비스로 마일리지 기부도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대구ID앱과 D마일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을 각각 설치하고, 대구ID앱에 회원가입 후 앱 내에 'D마일' 배너를 클릭하면 로그인 정보를 연동하여 'D마일'앱에연결된다. 회원가입및문의사항은고객센터나 사용자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경현 대구시 미래ICT국장은 "2023년은 D마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회원 수 증가 및 신규 서비스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D마일 서비스를 통해 사용처가 없어서 버려지는 마일리지 가 아니라 마지막 1마일리지까지 지역 소상공인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북구, 풍요로운 대보름 달집을 태우며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세요.

대구 북구에서 개최되는 '2023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가 2월 5일 오후 3시부터 금호강 산격대교 둔치(산격야영장)에서 열린다. 대구 북구청이 후원하는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가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2월 5일 열린다. 이번 축제는 축하마당, 체험마당, 달빛마당, 먹거리마당 총 4개 마당으로 구성되어, 달집태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축하마당은 오후 3시부터 풍물단 길놀이로 시작으로 축제의 흥을 돋우고 무형문화재인 외줄타기와 모듬북 공연에 이어 기원제와 달집태우기, 불꽃쇼 등으로 진행된다. 정월대보름 축제의 꽃인 달집태우기는 라인로켓과 점화봉을 이용한 독특한 점화 퍼포먼스를 통해 전통과 현대문화의 조화를 구현할 예정이다. 체험마당은 '소원지 작성', '내가 만드는 귀밝이술과 달고나', '떡메치기', '천제관측', '연날리기'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행사 시작 전 주민들이 새해 소망을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중 세시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의 근절을 위해 북구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과 연계하여 행사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하는 친환경 축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번 축제를 주최하는 이연희 북구문화원장은 "지역의 풍요와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축제에 많은 관람객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찾으셔서,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도 즐기고, 달집을 보며 소원도 빌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축제를 후원하는 배광식 북구청장은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는 달집태우기라는 일회성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승가치가 높은 세시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행복을 향한 염원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축제로 계승 발전시키는 중"이라며, 특히 금호강변을 무대로 하기에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펼쳐갈 대구의 대표 문화상품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예천군, '행복예천' 실현을 위해 주민행복과 신설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주민 행복지수 향상



예천군은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서비스 활성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개편으로 주민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르신복지팀, 여성보육팀, 아동청소년팀, 드림스타트팀 총 4개 팀을 편성했다. ▲어르신 복지향상과 권익증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지원 712억 원 예산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초연금 지급과 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한 공공형(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관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영아수당·영유아보육료·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확충 등 174억 원 예산을 투입하며 예천군가축센터 운영 등 18억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설 및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호명면 도청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유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규 설치로 맞벌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또한 공공영역 아동학대 현장조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올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 교육을 물론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부모들에게도 전면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일반 아동과 더불어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수당, 결식아동급식지원, 요보호아동지원, 어린이 날 행사 등을 추진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서 주민복지실을 사회복지과와 주민행복과로 분과했다."며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며 품격 높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고추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하다

바이러스는 생육초기 감염될 경우 수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고추 생육 초기 예찰과 방제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작년 영양군에서는 토마토반점무늬 바이러스(TSW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등 바이러스로 고추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고추에서 문제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이 진딧물이나 총채벌레에 의해 전염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병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개충을 예찰하고 하우스와 본답 주변 매개충의 서식처가 되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육 초기 감염이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히 육묘과정에서부터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이러스 감염 시 감염증은 제거하고 계통이 다른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등록 약제 3~4종을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번갈아 살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라면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좋다.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빠른 진단을 위해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상시 보유



하고 있으며 농업인교육을 통해 방제 방법을 교육하고 2월 고추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바이러스방제에 힘쓰고 있다.

연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과정에서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이러스병은

완전 방제가 어렵고 발병 시 큰 피해를 끼치므로 예방적 관리를 통해 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속적인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 지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대한축구협회, 춘·추계 전국중등 축구대회 장기개최 협약

올해부터 5년간 진행돼 연간 5만명 방문, 40억원 경제효과 기대

영덕군과 대한축구협회, 경상북도 축구협회, 영덕군축구협회는 영덕군에서 5년간 진행되는 '춘·추계 전국중등(U-15)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7일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손호영 경북축구협회장, 하상목 영덕군축구협회장이 참여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영덕군은 2011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산하 연맹인 한국중등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전국중등축구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노하우를 쌓아 왔으며,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2021년부터 장기간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

이에 영덕군은 해당 축구대회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월 춘계대회와 7~8월 추계대회로 개최하게 되며, 대회마다 100여개 팀 4,0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연간 5만명 이상이 영덕군을 방문함으로써 연간 4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대신



해 참석한 최영일 부회장은 "축구를 사랑하는 영덕군민 여러분의 열정과 뛰어난 축구 인프라를 통해 수많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영덕군이기에 장기 개최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향후 영덕군 축구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번 대회를 영덕군에서 5년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뛰어난 축구 인프라와 대회 운영능력을 통해 선수·가족·지역민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과 축구 유망주 발굴을 모두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안동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개최

5년 만에 개최, 한해의 액운 물리치고 시민 무사 안녕 기원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2월5일 일요일(오후 3시~9시) 안동 낙동강변 둔치(청소년 수련관 건너)에서 열린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문화원이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2018년 개최 이후 AI(조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시민의 무사 안녕과 안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자 한다.

이날 일 년 동안 마을과 가정에 악귀와 잡신의 침입을 막고 풍농과 가정의 복락을 빌기 위한 지신밟기와 신명과 흥의 대명사 고고 장구 공연 행사로 축제의 막을 열 예정이다.

한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오곡밥, 귀밝이술, 부럼깨기 등의 전통음식체험과 국수 및 어묵 나누기 행사,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율놀이대회, 연날리기대회, 율점 보기, 제기차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과 가요, 고고 장구 등 음악 공연을 통해 세시풍속의 즐거움을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한 해의 액운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달에 소원을 비는 달집태우기이다. 달집태우기는 짚이나 솔가지 등을 쌓아 올린 무더기에 각자의 액막이 문구를 달집에 걸어 보름달이 떠오를 때 불을 질러 태우는 것이다.

안동 낙동강변둔치에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하늘에 올려보내 보름달에 새기고, 한해의 행복과 안녕이 달빛으로 내려와 시 승격 60주년 되는 계묘년 올해 활기차게 다시 뛰는 안동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정월대보름날

윤근수/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군민과 소통행보 나서

2023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

청송군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2023년 군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 지역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1월 31일 주왕산면(오전)·청송읍(오후)을 시작으로, 2월 1일 현동면(오전)·안덕면(오후), 2월 2일 현서면(오전)·부남면(오후), 2월 3일 파천면(오전)·진보면(오후)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방문하지 못했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초고령 사회의 대응 방안 또한 현장에서 직접 찾을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군민과 대화의 자리는 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로써,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16개 기관 지정

무학력 성인에게 배움과 학력 취득 기회 제공

경북교육청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정이 확정된 기관은 포항시 평생학습원 등 16개 기관으로 초등과정 39학급, 중학교 과정 13학급을 개설해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운영한다.

2023년 지정기관은 △포항시 평생학습원 △경주행복학교 △한림야간중고등학교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김천희망학교 △용상평생교육원 △안동시 평생학습원 △영주 YMCA △영천시 평생학습관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 △상주희망학교 △의성군청 △의성노인복지관 △안계노인복지관 △금성노인복지관 △울진군청이다.

특히 모든 기관이 다년간 성인문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배움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내실 있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글 교육을 받길 원하는 도내 비문해자는 2월 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에 신청해 3단계 과

정을 이수하면,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학력인정자는 초등 58명, 중등 23명 총 81명이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학력인정 이수자는 총 513명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배움에 대한 열

정으로 배움을 희망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문해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해 더 많은 분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교육청, 2023. 유치원 공모사업 운영 계획 발표

맘껏놀이 우수학급, 초록유치원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6억4,500만 원 투입

대구시교육청은 유아의 놀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2023. 유치원 공모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놀이하며 배우는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유아의 조기 안전 습관 형성을 위한 안전한 경 조성 ▲교육공동체 협력에 기반한 교육과정 연계 방과후 과정 운영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개 사업을 공모한다.

교육과정 기반 놀이 활성화를 위한 ▲맘껏놀이 우수학급 300학급을 운영하고, 체험중심 유아 생태 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록유치원을 지난해 8개원에서 10개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교육을 위한 ▲이음교육 시범유치원을 지난해 2개원에서 올해 10개원으로 8개원을 확대한다.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유치원 전문학습공동체를 지난해



50개 팀에서 100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여 교육과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한다.

체계적인 안전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교육활동 우수유치원 20개원을 운영하고,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간·유치원-학부모 간 소통·협력 등을 통한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 놀이배움터 30개원을 운영한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는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협력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10개원에서 운영하고, 로봇

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교육 시범유치원을 10개원 운영하여 미래형 유아교육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유치원 공모사업에 총 6억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치원의 자발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한 유치원 교육력을 제고하고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문화 조성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놀이 중심 문화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27개월 만에 NO마스크 회의 주재하며 '청렴 1등급 도시의 공직자 자세' 강조



주낙영 경주시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30일 오전 국·소·본부장 회의를 열고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과 관련해 언급했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기초 자치단체 시 부문 종합 1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3등급에서 2단계를 오른 것으로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단계나 수직 상승한 성적이다.

종합청렴도 1등급 획득은 경북 23개 시·군 중 경주시가 유일했다. 주 시장은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1800여명의 공직자와 25만 경주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성(攻城)보다 수성(守城)이 더 어렵다. 절대 1등급이라는 성적이 안주하지 말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청렴하되 민원인들을 상대로 무조건 강직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의 유연성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주 시장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인 청렴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명나라 시대 대표적 청렴결백한 고위 관리 '해서(海瑞 1514-1587)'를

언급하며 "백성들에게 해서는 당연히 좋은 관리였다. 백성들의 기운이 청렴이었기 때문이다. 해서의 청렴함에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시 그의 직책은 우도 부사(현재의 감찰부장)로 정2품의 고위 관직이었지만, 그가 남긴 재산은 자신의 장례비를 충당하기에도 모자라 동료 관원들이 돈을 건여야 할 정도였다.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었다고 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청렴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나"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반문했다.

주 시장은 "공직자에게 청렴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친절"이라며 "비록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지 27개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8개월여 만에 경주시가 이날 첫 노마스크를 회의 주재했다.

윤태용/기자

지방시대! 환동해발전 컨트롤타워 경상북도 동부청사

미래 먹거리 발굴 등 환동해발전 컨트롤 타워 역할 강조

경상북도는 30일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이달의 경제부시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첫 업무보고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 이어 자유로운 순으로 진행됐다.

동해안전략산업국은 '동해안시대 실현으로 대한민국 바다시대 주도'를 비전으로 지역기반 해양신산업 중점 육성,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 원전 혁신기술 생태계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규 및 역점 추진 사업으로 해양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찾아오는 동해안 조성, 해양 R&D 사업 발굴을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에너지 대전환 시대준비, 혁신기술 기반 구축으로 원전 르네상스 실현 등 4대 분야 동해 바다문화 인프라 조성, 글로벌 원자력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13개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해양수산국은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 해양·수산·관광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고소득 수산업 신성장 새어촌, 안전한 동해바다 고성장 항만물류, 여유로운 해양관광 활력충진 해양레저를 목표를 제시했다.

고부가가치 수산업 및 건강한 생태어장 구축,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 조성 및 어촌활력증진, 안전한 독도 조성과 동해연안 가치 증진,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강화, 선진 수산기술 보급과 수산자원 연구개발 등 5개 핵심전략과 스마트 수산식품 산업화, 해양레저관광 확대 등 10개 중점추진 시책에 대해 보고했다.

신규 및 역점 시책으로 마린보이 프로젝트 추진, 내수면 관광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센터 조성,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센터 조성,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및 운영, 갑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제4회 섬의 날 행사 개최, 이웃어촌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K-연어 스마트 아쿠아팜 연구개발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달의 경제부시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 발굴 등 새로운 사업발굴에 힘



써야 한다. 청년이 다시 찾는 바다,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환동해를 위해 오늘 보고가 보고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특히, 금년 하반기 동부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는 만큼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데 더욱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구)용흥중학교를 임시청사로 사용 중인 경상북도 동부청사는 올해 하반기 포항시 북구 용흥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동해바

다와 경북을 비추는 등대를 형상화해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중인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달의 경상북도 경제부시사는 "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넘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존중받는 '지방시대'가 열려야 경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 동부청사가 동해 바다시대 컨트롤 타워는 물론 지방시대를 앞당기는데 중심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일본 다시 찾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기반 다진다!

(오사카) 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 개최부지 시찰, 준비상황 청취 및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응 노하우 청취

부산시는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박형준 부산시장의 일본 순방 이후 일본 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기반을 다시 한번 다지고, 지지 동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과 교섭단을 꾸려 ▲ 도쿄 ▲ 오사카 두 도시에서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 도시 부산의 매력과 부산시·정부의 빈틈없는 유치 준비상황을 홍보하면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유치 홍보·교섭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도쿄에서 2030세계박람회 개최국가 투

표 의사결정의 주무부처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주요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또, 자민당 중의원 의원 등 입법부 핵심 인사들도 만나 유치 교섭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2월 1일 오사카로 이동한 다음, 만국박람회추진국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 개최부지를 방문한다. 이어 시 타카하시 토오루(高橋 徹) 오사카시 부시장과 만나 2025년 박람회 개최 준비상황을 듣고 두 도시 간 성공적인 개최와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사카 국제박람회협회와 만국박람회추진국을 방문, 핵심 관계자에게 올해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를 대비한 노하우를 듣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2월 2일 귀국한다.

일본은 2025오사카·간사이세계박

람회 유치 과정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를 빈틈없이 성공적으로 대응한 바 있어, 이번 노하우 청취가 부산시와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한상의 관계자도 교섭단으로 동행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교섭뿐 아니라, 양국 및 도시 간 경제 교류 협력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2025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인 오사카시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본 내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위한 동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영주시, 시설직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전문성 강화'

10회에 걸친 교육으로 신규 직원 직무역량 강화

영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시설직 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마무리했다.

시는 10회에 걸쳐 토목 설계요령, 측량 실습, 설계예산서 작성, 공사감독의 실무와 건설공사 추진에 필요한 기본법규 이해 등 시설직 공무원이 갖춰야 할 실무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은 사업의 계획·설계·실시·시정 단계부터 공사발주단계와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전체 사업 흐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공사감독 실무에 필요한 관련 법령과 민원 응대 방법을 익혔다.

직접 측량장비를 이용한 실습과 측량한 자료로 설계를 하면서, 공사 현장 상황을 배우고 시공 중인 현장을 방문해 시공의 흐름 및 안전 관리를 숙지하면서 공사감독으로서 책임감을 강화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관내 제조공장을

방문해 자재의 품질관리·생산과정, 제품 검수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생산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직무수행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직무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시에서는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을 단기간에 배양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설계·용역·공사 감독 업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영주시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근수/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소통' 광폭 행보

이강덕 포항시장, 산업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 건의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이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만나 포항시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사진=1-2. 좌측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국제 컨퍼런스 및 국회 포럼 개최 등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포항이 국가전략산업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도 포항이 광역교통망, 산업단지, R&D 인프라 등을 갖춘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수도권이나 해외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투자 단계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를,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하

입주 증가로 대용량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전력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영일만산단은 송전선로 조기 건설 및 추가 전력 공급을, 블루벨리산단은 신설 변전소 조기 건설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며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내년도 예산에 추가 설계비 10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 시장은 문성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만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 선정'에 포항이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유선석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내외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 한해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비 확보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월 중 2024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 갖고, 정부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전략적인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태용/기자

2022년 강원도 연간 방문객 1억 5,345만 명, 전년 대비 증가율 전국 1위

전년 대비 17.8% 증가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강원도와 강원도관광재단은 KT 통신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2022년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억 5,345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에 비해 17.8%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방문객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강원관광은 2019년 방문객인 1억 4천만여 명을 넘어섬으로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계절별 방문객 순위는 여름, 가을, 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12월 방문객은 전년 12월 대비 50만여 명 감소한 5%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전월 대비 74만여 명 감소한 7% 감소율을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는 날씨에 의한 스키장 개장 시기 지연 영향으로 추정되며, 전월 대비 감소요인은 12월 중순까지 진행된 카타르 월드컵 개최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월 시군별 방문객 데이터에서는 전년 대비 10개 시군의 방문객이 증가했는데, 정선군(27%), 속초시(12%), 양구군(5%) 순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정선은 삼탄아트마인(142%), 아리랑센터(95%), 하이원리조트(43%) 등 문화 및 휴양관광지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전월대비 방문객 수는 일부 감소를 보였음에도, 22년 12월 강원도 관광소비 규모는 약 1,64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억 원 증가한 12%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또한 18억 원 증가한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관광소비는 음식(16%), 레저(15%) 부문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요 관광지별로 분석하면, 정선 '도롱이언못'으로의 방문이 전년대비 약 431% 증가했다. SNS 연관 검색어 분석에 따르면 높은 고도의 지형 특

성을 활용하여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트레킹이 관광매력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방문객 유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창 '대관령 눈꽃마을'은 전년 대비 약 134%의 방문객이 증가했는데, SNS 연관 검색어 분석에 따르면 급격한 곡선으로 차별화된 코스인 '봄슬레이 눈썰매'가 관광객들 사이에서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 '실내 빙상장(컬링센터)'는 전년 대비 약 248%의 방문객 증가했는데, 실내 빙상장에서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가 이색 체험관광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관광재단 원문규 관광마케팅 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강원 관광의 청신호를 확인했으며, 2023년에도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2023 영월군 정월대보름축제, 단종대왕 신주봉정 행사 개최!

영월군이 주최하고 영월문화원, 영월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3년 영월군 정월대보름 행사가 2월 5일 오후 12시 동강둔치에서 개최된다.

영월군 정월대보름 행사는 대표적인 민속 명절의 하나로 일 년의 행복을 기원하는 영월 군민들의 참여 행사이다.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는 오후 1시 길놀이로 시작하여 개막식, 민속놀이, 민속공연, 신주봉정, 달집태우기, 대동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는 단종대왕 신주봉정 행사는 단종대왕에게 봉정하는 신주를 빚어 제56회 단종문화제 기간에 개봉하는 행사로 고유제, 신주 빚기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1월 31일 오전 10시 군청 광장에서는 신주미 봉정 개막식을 통해 9개 읍·면사무소와 현

를 주관하는 영월문화재단에서는 정월대보름축제를 통해 영월군민 모두의 소망한 꿈이 이루어지고 군민들이 하나 되는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원/기자



평창군, 민선8기 군정 실질적 원년 본격 시동

인구유입, 농업생산력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

평창군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해는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2023년도 한해는 파악된 군정상황을 바탕으로 민선8기의 기본공약과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선 8기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와 산재되어 있는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정리했으며, ▲국·도비 1,063억원 확보(평창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공모 선정 231억원,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협약 체결 376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 도내 최대 확보 456억원)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전지훈련단 유치 205팀 52,282명 경제효과 27억원, 도단위 이상 대회유치 32개 대회 경제효과 33억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디지털 관광주민 23,000명, 평창여행자카드 발급 12,000장) ▲대학생 전액 장학금 등 평창창학금 지원 확대(900명, 약 21억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공모 선정(68세대, 212억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선제적 대응(특례발굴 35건→핵심특례 선정 12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평창군은 올해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대비 약 22.7%(638억원) 증가한 3,447억원을 역대 최대로 확보했으며,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군정을 5개의 전략목



표를 15개 정책목표로 세분화해 미진한 부분은 하나하나 챙기면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군민 생활 전 분야가 골고루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우선 목표로 인구유입 대책 마련, 농업생산력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의 분야에 주안점을 두어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유입을 위해 강원도 최대 규모로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기초) 670억원을 마중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평창을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생활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 유치가 평창군으로 순유입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귀

농·귀촌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인구 유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민이 찾고 싶고, 살고 싶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농림축산업 분야에 투입하고, 농축산업 경영환경 개선과 안정화를 위해 당사국 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며,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소모성 농자재를 반값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단계 경기부양책으로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과 전지훈련 및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약 6만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훈련시설도 꾸준히 개선·확충하며, 1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2023년도 평창군정의 방향성에 맞추어 국비 확보 및 국회 예산심의 등 대외적 활동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국가정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개선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예산군, 2023년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박차

예당호, 덕산온천, 대표축제 연계 등 관광상품개발 총력

예산군은 2023년 예당호 주변 인프라 확충 및 덕산온천 연계사업, 지역 관광자원과 대표축제 연계 등을 통해 오감만족 문화관광 실현을 위한 체험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꾀한다.

군은 최근 여가시간 증대, 워라벨 등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한달살기 등 일생생활과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 수요에 발 맞추어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목적으로 관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먼저 예산군은 체험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3년간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은 여행자가 일정 기간 방문지역을 체류하면서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사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 6일 개통한 예당호 출렁다리라는 작년 12월 말 기준 620여만명이 다녀가는 명품 관광지로 발돋움했으며, 예당호 음악분수에 이어 작년 10월 개통한 전국 최초 테마형 야간경관조명을 갖춘 모노레일은 개장 100일차 관광객 8만여명이 다녀가며 예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예당호 주변지역은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 전망대

등이 자리하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 세상과 반려식물 체험 및 아름다운 경관 조명이 가능한 썬 하우스 조성, 수변무대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 관람이 가능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관광사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 개최된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다양한 공연, 체험, 요리경연대회 등으로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며 축제기간 동안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에 3만 4,000명, 모노레일에는 1만 4,000명이 방문해 축제 시너지 효과를 특특히 얻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축제시즌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투어 코스를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코레일과 연계하여 예산을 방문하는 서울·경기권의 기차여행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맞춤형 레일시티투어를 6주간 시범운영하여 300여명이 이용하며 인기를 체감했으며 특히 덕산온천에서 1박을 하는 투어 일정은 일찌감치 마감되어 겨울철 온천여행 인기도 실감하게 했다.

또한 예산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수덕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한민국관광 대표 브랜드 '2023-2024' 한 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2021-2022' 한국관광100선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황새공원 선정



에 연이어 이름을 올려 우리나라 대표 명품 관광지로 인정 받았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단위 관광개발사업의 지속 추진과 예산군만의 독보적인 역사, 문화, 생태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트렌드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천안사랑카드 2월 한 달간 10% 캐시백 지급한도 80만원! 난방비 폭등에 따른 '천안형 재정지원' 정책 시행

시민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시너지 효과 기대

천안시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천안사랑카드 10% 캐시백 지급 한도를 2월 한 달간 8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지난 26일 한파에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 1800억 원을 투입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두 배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천안시는 여기에 추가로 천안형 재정지원 정책을 더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아닌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원이라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천안형 재정지원 정책은 복합적 경제위기에 처한 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및 소득 보전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2월 한 달간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급한도가 기존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되면, 3인 가구 기준 15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또 약 50억 원의 캐시백 증액에 따



른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한 달간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하나의 정책으로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양득의 재정정책이 얻어붙은 시민 경

제를 해동할 수 있는 따뜻한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700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함께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28일 아침 대전 봉사체협교실이 주관한 '사랑의 연탄 나눔' 700회 행사에 참석하여 참전유공자 가정에 연탄 600장을 직접 배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강만희 보훈청장, 박희조 동구청장 등을 비롯한 봉사자 40여 명이 참여하여, 동구 소재 동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2명의 거주지에 연탄 600장을 배달하고, 보훈가족 250명에게 전기장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대전봉사체협 교실 권홍주 회장은 "뜻을 같이하여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의 헌신과 후원 덕분에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대전봉사체협교실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



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함께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대전봉사체협교실과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큰 힘이 되는 연탄처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

김원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분야 실전형 고급전문인력양성 본격 착수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올해 3개 대학, 매년 90억 규모 국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30일 첨단전략기술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신청에 관한 통합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의 첫 걸음으로서, 지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2.11.4)'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23년 3개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한 실전형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박사 인력 약 5천여명 양성을 목표로 '23년 2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에 착수한다.

특히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은 ①산업계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②산업계 수요기반의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③향후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신청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교육환경 구축 등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지원사업의 신청과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기간 내 제출하면 사업 선정평가와 지정요건 검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합업무를 위탁하여 선정평가 결과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 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석·박사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24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험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도 기획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진주시, 중소기업 구매판로·기술인증 비용 지원

기업성장경쟁력 강화 위해 신규·갱신 인증수수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구매판로 확대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의 2023년 신규 또는 갱신 인증 취득 수수료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증분야는 구매판로 인증분야 16종, 기술인증 분야 7종이다. 구매판로 분야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등록, 성능인증(EPC),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특화인증,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KC인증, GS인증, GR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며 기술인증 분야는 ISO(9001, 14001, 22000, TS16949), INNO-BIZ(이노비즈) MAIN-BIZ(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AS9100인증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지역 기업과 공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기업 간 협력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서비스 창출 기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천안지역 기업과 공장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해 5월 '과학산업 맞춤형 지원 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2400만원을 지원받아 천안지역 기업과 공장 관련 1만893건의 데이터를 구축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는 ▲천안 기업 현황 2,776건 ▲천안 공장 등록현황 2,941건 ▲진흥원 기업실태조사 결과 141건 ▲진흥원 지원사업 수행 결과 5,035건 등으로,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됐다.

오픈API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프로그래밍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개발(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방 형식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진흥원의 E-Science 플랫폼과 연계해 1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공데이터 포

털에 등록된 천안의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검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진흥원은 이번 정보 공유체계 구축으로 천안 기업 간 협력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에 데이터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욱 원장은 "천안지역 기업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삼성리서치, 세계적 기계 번역 경진대회서 기술 경쟁력 입증



▲ 삼성리서치 글로벌AI센터 언어랩 연구진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개발(R&D) 조직인 삼성리서치(SR)가 세계적 권위의 기계번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삼성리서치와 삼성리서치 산하 폴란드연구소(SRPOL)는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기계번역학회(Conference on Machine Translation, WMT) 주최 기계번역 경진대회에서 동반 입상했다고 밝혔다.

기계번역은 컴퓨터를 이용해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것으로, 삼성리서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 언어랩(Language Lab)은 바이오 메디컬 도메인 특화 번역 부문 영어↔스페인어 양방향 언어 번역에 참가해 1위를 차지했다.

WMT가 매년 개최하는 도메인 특화 번역은 바이오메디컬 분야로, 전문 용어가 특히 많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이번 대회에도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등 총 14개 번역을 두고 참가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연구진은 동일 단어가 도메인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는 것과 낮은 사



▲ 삼성리서치 폴란드연구소 연구진

용 빈도로 인해 전문 용어의 학습 데이터가 많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 컨스트레인트(soft-constrained) 용어 번역[1]' 기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번역 성능을 향상시키고 해당 전문 용어가 결과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리서치는 현재 특허 분야 번역 서비스(한국어-영어)를 'SR Translate (https://translate.samsung.com)'에서 제공하는 등 도메인에 특화된 번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폴란드연구소는 뉴스 번역 등을 평가하는 일반 부문의 영어→러

시아어, 영어→크로아티아어 2개 언어 방향 번역에서 2위를 기록했다.

폴란드연구소는 지난 2017~2020년 구술 언어번역 국제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Spoken Language Translation, IWSLT)에서 진행한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우승하는 등 기계 번역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기계 번역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글로벌 무대에서도 역량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대구시, 국내기업 중동 시장 진출 지원

두바이 아랍헬스 박람회 참가, 기업 7곳과 공동관 운영

케이메디허브가 국내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해 기업 7개사와 공동관을 운영하고 아랍시장 확장을 돕는다.

케이메디허브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World Trade Center)에서 열리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이하 아랍헬스 2023, Arab Health 2023)에 참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아랍헬스 2023은 독일 메디카와 함께 대표적 의료기기 전시회로 꼽히는데, 중동의 '큰 손'이라 불리는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 때문에 기업 사이에서 매력적 의료전시회로 손꼽힌다. 아랍헬스 전시회는 2022년도 기준 68개국 3,500개사가 참가하고, 약 6만명이 관람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통해 양국의 협력과 투자유치가 발표된 직후 개최되는 전시회라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대가 한껏 고조된 상태다.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첨단의료기기 개발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72㎡의 공동관을 운영하고, 참가기업들을 위해 전시참가비용과 시설·장치비를 지원했다.

이번 아랍헬스 2023의 케이메디허브 공동관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7개사가 함께 참가한다.

공동 참가 기업은 멘티스(척추 임플란트/대구 동구), 엔도비전(척추 내시경/대구 동구), 비에스엘(줄기세포 자동분리기/경남 김해), 인텔로스(면역진단키트/대구 북구), 원소프트다임(휴대용 체성분 분석기/대구 북구), 스마트사운드(생체신호 측정기/서울 강남), 아이아이테크놀로지(디지털헬스케어 시스템/경기 성남) 총 7개사다.

전시회 출품 제품은 의료 진단 및 치료기기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기업의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케이메디허브는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의 구심점으로 국외 주요 의료기기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



▲ 사진은 케이메디허브 본부동 전경. 낮과 밤에 각각 촬영한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최근 직원들 대상으로 열린 사진 경연대회의 수상작.

여하며 네트워킹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KOAMEX(코아멕스, 대한민국 국제첨단의료기기·의료산업전)에서도 MEDICA, 아랍헬스 참가기업의 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첨단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막바지 총력 대응

경주 원전산업 수출과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SMR 국가산업단



를 위해 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 미분양 해소 대책, 지자체 지원 계획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번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에는

우리들의 후보지들은 지역의 산업특징과 연관기업, 공공기관 집중도, 인근지역과의 연계성이 높고 토지개발에 따른 규제지역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최종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한편 경북도내 국가산업단지는 9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2,605개사가 입주, 고용인원 10만 명에 이르는 등 지역의 생산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원자력, 수소, 백신산업은 모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 수상

안동시는 1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에서 "글로벌 평생학습상"과 "파트너십상"을 수상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1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좋은정책 어워드'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가 공동 주관했다. '모든 평생학습도시 정책은 특별하다'라는 공모 주제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어 전국의 우수한 평생학습도시의 정책을 발굴하여 공유하고, 민간 협업단체와 평생학습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좋은 정책 어워드는 ▷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역사회 문제해결 ▷대상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맞춤형 평생교육 ▷글로벌 평생학습 ▷기후위기, 평화통일, 환경(ESG)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정책 ▷기타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상했고, 평생교육사와 민간단체 대상의 파트너십상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 안동시는 지난해 개최한 제16회 안동 IAEC 세계총회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GNLIC) 활동을 인정받아 "글로벌 평생학습상"을 수상했다. 또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동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장 박종주)가 "파트너십상"을 받아 지난 연말 경상북도 평생학습 대상 수상에 이어 2003년 대구·경북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시가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에 이번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 수상은 큰 자극이 된다. 국내 평생학습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의 교육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안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국민가수 김연자 씨, "맛·멋의 고장 전남 발전 응원"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 세 번째 주자 나서

원조 한류스타이자 '아모르파티', '블링블링'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가수 김연자 씨가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에 나섰다.

전남도는 향우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참여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선발주자로 나선 가운데 김항식 전 총리에 이어 국민가수 김연자 씨가 세 번째로 참여했다.

김연자 씨는 "트로트 가수로서 예향 전남과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며 "맛과 멋의 고장 전남이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더욱 발전하도록 힘껏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연자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여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원조 한류스타다.

지난 2021년 12월 전남홍보대사로 위촉돼 전남 방문의 해,남도음식문화관전지 등 전남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부금 답례품으로남도 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함께 여수 갯김치, 나주 배, 영광 굴비 등 전남의 매력이 담긴 농축산 특산품을 준비했다. 천연염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체험·관광상품도 포함했다.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

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정해명기자

대구 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내부통제활동 강화로 시스템 운영 부분 100% 달성

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동구청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공감한 전 직원의 성실한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 '매우 우수'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 직원 반부패 청렴서약, '청렴다함Day' 캠페인, 일과 종료 후 '청렴다짐멘트' 방송으로 청렴노력 인식 공



유, 청렴과 공직문화에 대한 담론회 및 '청렴 콘텐츠' 제작을 통해 기성 공직자 세대와 MZ세대의 의견을 공유하는 등 내부소통을 강화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HDC현대산업개발 구룡마을 이재민 기부금 전달식 참석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7일 16시 30분 강남구청에서 열린 HDC현대산업개발 구룡마을 이재민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김한덕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신양섭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심계원 강남복지재단이사장이 참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구룡마을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성금 7천만 원(현금 5천만 원, 현물 2천만 원 상당)을 강남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구룡마을 이재민은 44가구 68명으로 이 중 38가구 54명이 임시주거시설을 이용 중이다.

앞서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다이소, 현대백화점점점, 연탄은행, 한전강남지사, 대구시청, 서울광역시, 아이디어, 쿠팡, 강남구세마을지회



등에서도 생필품 등 구호품을 지원했다. 김현기 의장은 "엄동철에 갑작스런 화재로 몸 누일 곳을 잃은 이재민들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해주는 손길들이 있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김 의장은 "후속조치들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의 행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나주시, 평생학습 '좋은정책상' 수상... 도내 지자체 유일 쾌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참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평생학습 분야 정책 우수성과 경쟁력을 연이어 입증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AWARD)'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2022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 초대 어워드 수상까지 3년 연속 상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 품격을 높였다.

이번 어워드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고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후원했다.

심사는 전국 189곳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와 교육지원청 74곳, 대학·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 정책사업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협의회는 1차 심사를 통해 정책사업 97건을 추려내고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지자체 15곳과 기관 5곳을 각각 선정했다.

나주시가 공모·수상한 평생학습정책사업(명칭)은 '지구를 바꾸는 작은 움직임, 에코 체인지메이커'이다.

2022년 교육부 지원에 따른 시범사업인 에코 체인지메이커는 9



개 학교(초등2·중학5·학교밖2) 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환경 생태 문제 발견과 해결 방안 설계, 지속가능한 모델 찾기 등 자주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사업추진에 앞서 평생학습을 통해 '체인지메이커' 자격을 취득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강사로 초빙해 지속적인 심화학습, 교안·교재개발, 교육역량 점검 기회를 제공한 점이 어워드 심사 과정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에코 체인지메이커는 기후위기 시대 미래 세대 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환경 감수성 함양과 자주적인 미래 설계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됐다"며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이 자기계발과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폭넓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이학수 시장,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자매도시 응원

8개 자매도시에 기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상생발전 기원

이학수 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에 참여, 자매결연 도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27일 NH농협은행 정읍시청지점을 방문해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8개 도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서구, 성북구, 강동구,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속초시, 경상남도 사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상생 기부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넓히고 상호 간 발전을 응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전국 NH농협은행에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정읍에 기부하면 고향의 사랑이 담뿍 담긴 귀리와 쌀차, 한우 등 17개 품목 62개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자매도시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하은기자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 4년 만에 대면 행사

2월 5일 해운대해수욕장... 한 해 안녕 기원



“등근 달에 새해 소망 빌어 보세요” 정월대보름인 2월 5일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38회 해운대달맞이 온천축제’가 열린다. (사)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해운대와 부산시가 후원하며 수만 명의 관광객이 운집하는 전국 대표 정월대보름 민속문화관광축제다.

축제 이틀 전인 3일부터 백사장에 ‘새해 소망 쓰기’ 부스가 마련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5일 정월대보름날에는 월령기원제,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대동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오후 3시 20분 온천비가 있는 해운대구청 앞 열린정원에서 ‘온천전설 무용극’이 펼쳐지고, 구청 앞에서부터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거리 퍼레이드가 축제의 흥을 돋운다.

주 행사장인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오후 4시 해운대아리랑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작가가 큰 붓으로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는 ‘휘호(붓글씨)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달집에 불을 지피기 전, 달집 앞에 제례상을 차려놓고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월령기원제를 지내고 달이 뜨는 시각인 오후 5시 20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 태우기가 진행된다.

이어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배경으로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펼치는 강강술래 공연이 펼쳐진다. 영남지역의 유일한 강강술래단인 해운대동백강강술래단이 펼치는 강강술래 공연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이자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유산이다.

송종진/기자

증평군 좌구산 9경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운영

증평군 좌구산휴양림은 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좌구산 9경 '스탬프 투어'를 2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지난해 좌구산휴양림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휴양림 활성화와 관광객 및 이용자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좌구산 9경 '스탬프 투어'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운영한다.

좌구산 9경 '스탬프 투어'는 좌구산휴양림 이용객이 좌구산 9경 지정장소를 방문하여 스탬프북에 도장을 찍어 인증하듯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은 휴양림 이용객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찾아온 방문객으로 1000명 정도가 이용했으며, 올해는 작년 인기를 바탕으로 2000명을 목표로 더 다양한 기념품을 준비할 계획이다.

유영호 휴양랜드사업소장은 “증평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증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좌구산 9경 스탬프 투어를 통해 증평 관광지의 매력을 느끼셨으면 한다”며 “이번 스탬프 투어가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용인특례시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저녁밥 인문학 특강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의 인문 소양을 넓히기 위한 인문학 특강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 시민들이 일과 후 다양한 분야별 인문학 강연으로 힐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저녁밥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특강은 영화를 소재로 구성됐다.

영화칼럼니스트이자 책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의 저자인 원은정 한국청소년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원 강사는 다음달 7일 첫 강의에서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통해 '내가 만나는 운명과 기적에 대해'를, 14일 영

화 수상한 그녀와 보헤미안 랍소디를 통해 '새로운 과거가 새로운 나를 만든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21일엔 아바타 1·2를 통해 '나와 연결된 이들, 공동체의 힘'에 대해, 28일엔 꾸삐씨의 행복한 여행, 인생은 아름다움을 통해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앱(ZOOM)을 통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인문학의 본질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주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30일부터 도 브랜드X예술작가협업 작품 신청사에 전시

경기도를 더 아름답게 만날 기회... KOMA, Grim.b 작가와의 협업 콘텐츠 제작

경기도가 30일부터 도 브랜드를 주제로 예술작가와 협업한 작품을 경기도청 신청사 지하 2층과 1층 도민공간, 민원인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연중 선보인다.

예술작품 분야는 그래피티와 일러스트레이션 등 2가지다. 경기도 도정 슬로건과 5대 기회, 캐릭터 '봉공이'를 주제로 도민들이 도 브랜드를 보다 친근하고 색다르게 접할 수 있게 제작됐다.

그래피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대표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경계 없는 창조를 만들어내는 코마(KOMA)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코마(KOMA) 작가는 지난 '2022 경기 송년 컬러 페스타' 당시 '라이브 그래피티'를 선보이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동감 넘치는 경기도의 변화와 기회'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는 따뜻한 시선과 색감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누구나 덮을 수 있는 편



안한 담요 같은 그림으로 화제가 된 그림비(Grim.b)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그림비(Grim.b) 작가는 엘리베이터의 세로 배열 요소를 재치 있게 활용, 경기도를 통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기회의 사다리'라는 도정 메시지를 따뜻하게 풀어냈다.

도는 전시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기도청 신청사에 방문한 방문객이 도 브랜드와 예술작가의 협업 작품을 찾아 인증샷을 촬영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참여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와 도민 공간에 전시된 작품 중 한 가지만 찾아 찍어도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촬영한 이미지만 인정되며, '#경기도청', '#봉공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필수 해시태그를 달고 경기도청 계정을 태그해 게시해야 한다.

도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62명에게 한정판으로 제작된 '경기도 X KOMA 컬래버레이션 친환경 텀블러 패키지'를 증정한다. 블랙과 화이트

버전으로 각 31개씩이며, 당첨자는 3월 3일에 개별 공지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강희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은 “경기도 브랜드와 예술작가의 협업을 통해 색다르고 재치 있게 탄생한 도 브랜드의 매력이 많이 알려지기 바란다”며 “도민들이 애정을 갖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경기도 브랜드가 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동대문의 역사, DDP 미디어아트로 만난다... '장소의 순환' 전시 개최

한양도성, 훈련도감,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DDP로 이어지는 역사 답아

동대문의 장소성과 역사적 가치를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전시 '장소의 순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전시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DDP 상설 미디어아트 전시장인 '미디어아트갤러리'와 투명 올레드(OLED) '미디어 월'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서울라이트 DDP'의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양도성부터 훈련도감,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DDP까지 동대문이라는 장소에 오렌 시간 층층이 쌓여온 이야기를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미디어아트갤러리'에는 입체물 표면에 프로젝터로 영상을 입히는 기술인 프로젝션 매핑과 음향을 활용해 몰입감을 높인 두 개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선보인다. 첫 번째 작품인 '그래픽 프로시저(작가 심규하)'는 조명 요소를 이용해 장소성의 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한양도성과 DDP를 기반으로 생성된 글자, 색깔, 형상이 규칙과 불규칙을 동반한 가변된 형태로 계속해 나타난다. 두 번째 작품 '한 점에서 빛으로 퍼지기까지(작가 김재)'는 과거, 현재, 미래는 연속적이면서 무한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시간의 흐름과 연속성을 점선에서 시작해 지형으로 변화되다 사라지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8개의 대형 패널이 하나로 연결된 '투명 OLED 미디어 월'에서는 세 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작품 '여행자(작가 슈퍼노멀)'는 한양도성과 동대문의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 여행하는 우주인의 모습을 미디어아트로 담았다. '빛의 여정(작가 함지원)'은 빛의 조각들이 모이고 흩어지면서 한양도성, 풍물시장 등 과거 훼손된 것들을 재현해 낸다. 마지막 작품 '시간의 지층(작가 스튜디오 아

텍)'은 옛 동대문 지형을 나타낸 평면 지도가 해체되면서 시간의 축적을 담은 3D 애니메이션 지도로 변하는 작품이다. 거대 입체 지도는 나비 날갯짓과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다. 작가는 패션, 교통, 시장 등 작은 요소들이 모여 동대문 문화가 형성된 것을 나비 효과에 빗대어 표현하고자 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육성 사업은 서울디자인재단이 매년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시 사업이다. 재단은 관람객에게 차세대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이를 보완·수정해 가면서 국내 미디어아트를 완성도 있게 이끌고자 한다.

'장소의 순환' 전시는 별도 예약 없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는 DDP 디자인랩 1층 미디어아트갤러리와 투명 올레드(OLED) 미디어 월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관일 없이 진행된다.

최광수/기자

안동 암산얼음축제 10만 인파 모여 썰매 타고 빙어 잡기 '삼매경'

"동장군아 물렸거라", 안동 암산 얼음축제가 10만 인파 열기로 후끈달아 올랐다.

4년 만에 열린 영남 최대 겨울 축제인 안동 암산얼음축제가 28일, 29일 이틀간 10만 인파가 방문해 썰매 타기, 빙어낚시 등 겨울 놀이 체험 삼매경에 빠졌다. 이번 안동 암산얼음축제는 1월 28일 시작해 2월 5일까지 아흐레간 암산유원지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대규모 천연 얼음 빙판에서 다양한 겨울 놀이 체험을 즐기며 추억 속 동심 여행을 즐겼다.

겨울왕국을 온 듯한 얼음 조각 조형물들과, 보기만 해도 짜릿한 수심 미터의 빙벽 포토존이 겨울 감성을 설레게 하고, 얼음 썰매 타기, 빙어 낚시, 스케이팅, 얼음 미끄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관광객들을 반겼다.

올해는 페이백 시스템이 적용돼 얼음 썰매와 빙어낚시 체험권을 사면 축제장과 인근 남후면 일대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5,000원 상품권을 되돌려줘 축제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성도 더욱 높였다.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700명 규모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전용 화장실, 몸 녹임 쉼터, 수유실 등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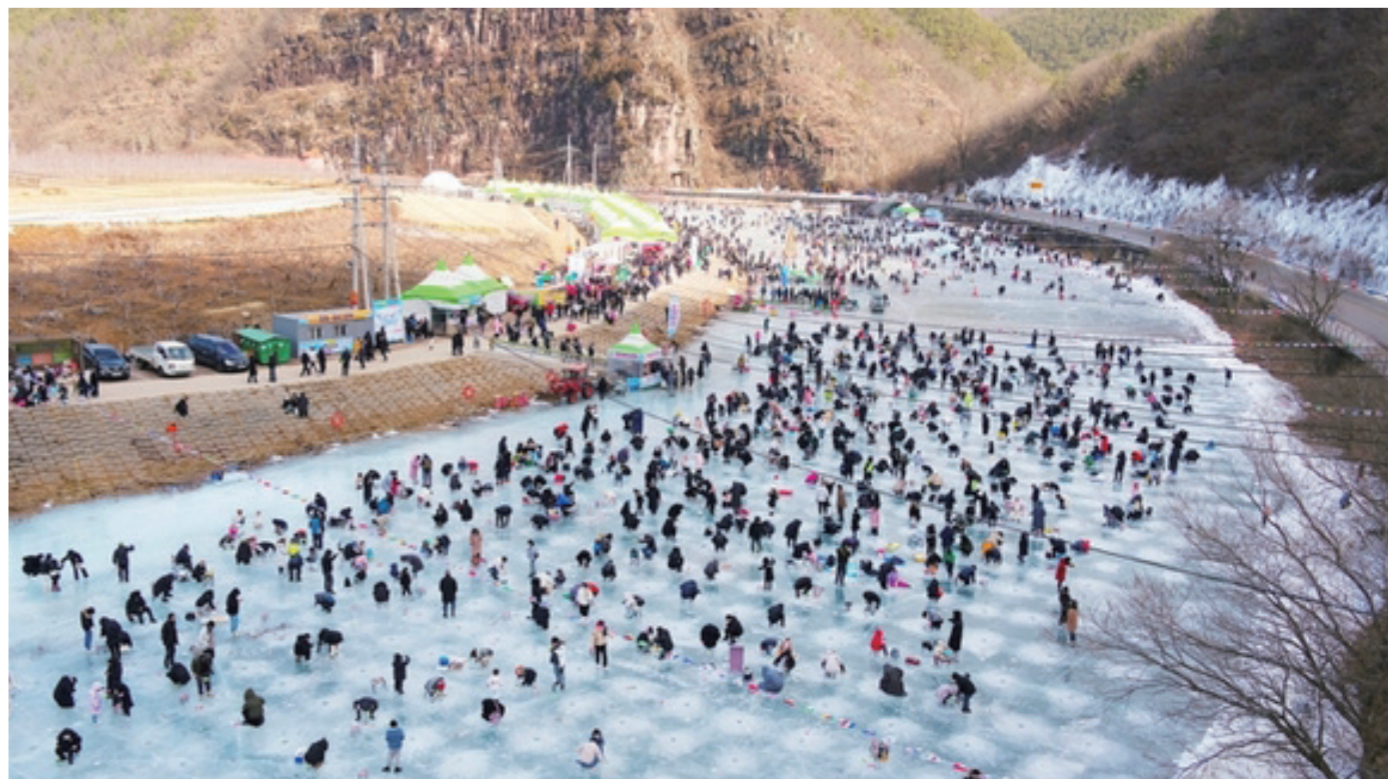
치해 편의성을 더욱 향상했다.

또한, 먹거리상가, 식당, 체험상가,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부스 등도 운영한다.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해 아흐레간 연인원 560여 명이 투입돼 축제 운영 및 안전, 방역, 환경, 교통, 주차 등의 분야에 배치된다.

윤근수/기자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답례품 :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 :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 문의 :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